

건강한 근로자, 안전한 일터를 꿈꾼다 투명함과 적극성으로 무결점 안전관리에 ‘도전’

- 한국마사회 -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국마사회를 ‘경마시행기관’ 정도로 알고 있다. 하지만 이는 사실 매우 그릇된 인식이다. 60년 역사를 자랑하는 마사회는 공공기관으로서 미필개량 및 종식, 생활승마 보급 등 공익적 측면에서 많은 일을 하고 있다. 또한 승마사업, 징구제조, 식육가공, 행정품 생산 등 말 산업의 육성에도 적극 나섬으로써 국가 경제 발전과 고용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다. 즉 경마는 마사회가 운영하고 있는 큰 틀의 말 산업에서 하나의 사업분야에 불과한 셈이다.

이처럼 여러 선도적인 공익사업으로 빛나는 마사회지만, 실은 마사회를 더욱 값지게 하는 것이 하나 더 있다. 그것은 바로 안전이다. 이곳은 그간 ‘건강하고 행복한 근로자, 안전한 일터 KRA’라는 슬로건 아래 적극적인 안전보건활동을 펼쳐 세간의 많은 주목을 받아왔다.

공공기관답게 깨끗하고 청렴한 안전관리판리를 선보이겠다는 마사회를 찾아가 봤다.

취재·사진 | 김성태 기자(glshu002@safety.or.kr)



투명함이 안전을 불러온다

한국마사회는 무결점 무재해 사업장이 아니다. 하지만 이곳은 대표적인 '안전우수기관'으로 손꼽힌다. 그 이유는 이곳의 '안전'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에서 찾을 수 있다. 이곳은 작은 사고 하나도 숨기거나 감추려 하지 않는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공개하고, 이를 개선할 수 있는 활동에 총력을 기울인다. 이것은 최근 몇 년간의 재해현황과 이에 대한 이곳의 대처가 잘 증명해준다.

2009년의 경우 이곳에선 8건의 재해가 발생했다. 그러나 이곳은 이듬해인 2010년을 안전원년의 해로 지정, 대대적인 안전활동에 나섰다. 활동의 중심에는 '단순 반복형 재해 예방', '근로자 건강증진', '재해발생 위험요소 제거', '선진안전보건문화 정착'이라는 4대 전략이 있었다.

이곳은 이 4대 전략에 의거해 단순 전도 예방 관리, 체력측정을 통한 운동처방, 자율안전점검체계 확립, 주기적 합동점검 실시, 작업환경측정 및 개선 등의 활동에 적극 나섰다. 결과는 매우 좋았다. 2010년 4건, 2011년 10월 현재 1건 등 재해가 큰 폭으로 줄어든 것이다.

하지만 이런 우수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이곳에선 만족의 분위기가 느껴지지 않는다. 오히려 이곳은 이러한 분위기를 정착시키기 위해 앞으로 더욱 안전활동에 박차는 가한다는 각오를 내비추고 있다.

고객의 안전까지 책임진다

한국마사회는 경기 과천에 위치한 서울경마장 외에도 전국 각 지역에서 장외발매소를 운영하고 있다. 이들 경마장과 발매소는 모두 고객과 접점을 이루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때문에 근로자의 사소한 부주의가 근로자 자신은 물론 고객에게도 재해를 입힐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이곳



은 근로자들의 안전의식을 향상시키기 위한 안전교육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이외 이곳이 공을 들이는 분야는 고객의 안전관리다. 매 주말 열리는 경마를 보기 위해 연 평균 전국에서 20만명에 육박하는 고객이 이곳을 찾는다. 작은 사고 하나가 나도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환경인 것이다. 그래서 이곳은 자사의 임직원을 비롯해 청원경찰, 경비, 단시간 근로자 등 현장 내 모든 구성원을 대상으로 안전의식 고취를 늘 강조하고 있으며, 시설안전점검 등의 사고예방 활동 및 대응시스템 운영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결국 안전은 '자율'이 성패를 가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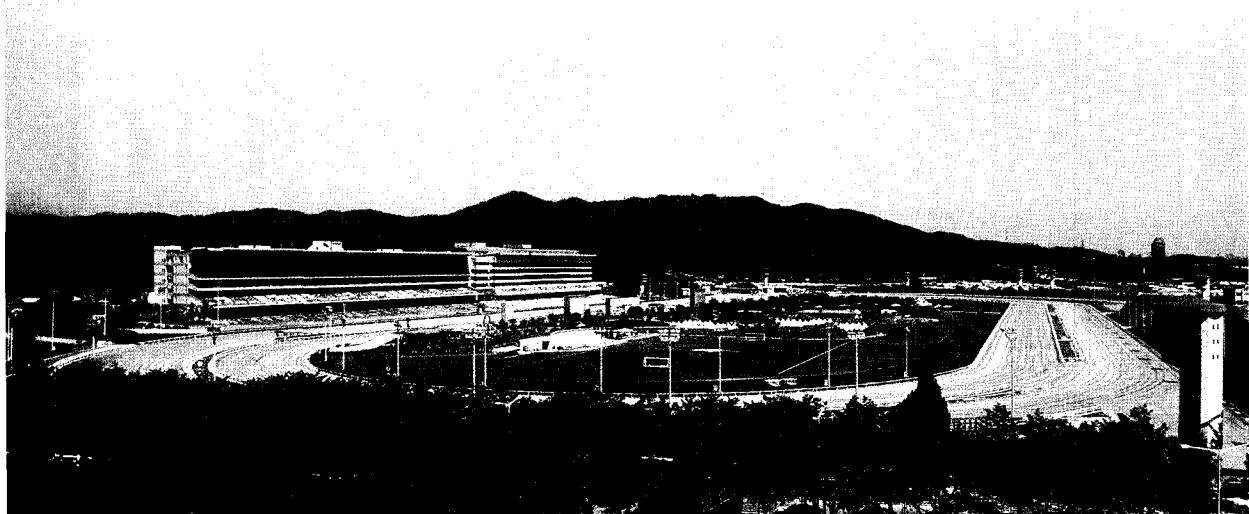
이곳의 안전활동 중 눈에 띄는 또 한 가지는 '자율성'을 매우 중시한다는 것이다. 이는 근로자들이 스스로 나서야만 빈틈없는 안전관리체계가 세워질 수 있다는 이곳 기관장의 방침에서 비롯됐다.

이런 기조에 따라 이곳은 부서별 자체 자율안전점검 등 근로자들이 주체로 나서는 안전활동을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다. 또한 위험 상황 발생 시 근로자들이 즉각적인 대응에 나설 수 있도록 비상사태 대비훈련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건강관리도 최고 수준

근로자들에 대한 건강관리 역시 이곳이 자랑하는 부분이다. 이곳은 조기에 질병을 예방하고 초기에 적절한 치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정기적인 건강점진의 실시를 기본으로 근로자 개인 체력측정관리, 금연크리닉 운영 등 다양한 건강증진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심지어는 40여종의 체력단련 기구 등을 추가배치하는 등 체력단련실을 대대적으로 리모델링했을 정도다.

이밖에 회사차원에서 30여개가 넘는 사내 동호회 활동도 적극적으로 지원, 직원들이 스트레스 없이 즐거운 직장생활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 ☺



인마일체(人馬一體)의 정신으로 작업에 임해야



이 종 대 총무인사처장

말 생산에서 유통, 경주시행, 발매, 정보제공 등 말과 관련한 1~4차 산업이 이루어지는 우리 사업장의 특성상 말에 채이거나 낙마하는 등의 사고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같은 산업재해는 인마일체(人馬一體), 즉 말과 완전한 하나로 조화를 이뤄야 한다는 평범한 진리를 간과하였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점을 감안, 우리나라 모든 사업장이 인마일체의 정신으로 현장에서 사용되는 기계, 장비 등을 다룬다면 아마 안전사고 발생률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우리 마사회 또한 이 정신을 가슴에 깊숙이 새겨 말 산업을 통해서 우리 모두를 행복하게 만드는 공공기관이 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